

지역사회와 노인복지

전 정 태

목 차

- I. 서 언
- II. 지방자치제도하의 노인복지 의미
- III. 지방화시대의 노인 복지사업과 시책

I. 서 언

지역사회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주민이 자주성과 주체성, 책임성을 가지고 공통된 귀속의식과 역할의식으로 생활향상을 기하려는 총체적인 지역집단 활동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들은 상호관계를 통하여 생활 욕구충족과 정주생활이 가능한 조건이 필요하고 공동체의식을 지녀야 한다. 이 공동체 의식이란 지역사회 보호의 실천 그리고 개인이나 가족집단의 사회적 관계를 강화해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10-729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전정태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복지 서비스의 개념을 내포하는데, 그 서비스는 인력활동을 증대시켜 이웃간의 인간관계 결속을 높여주는 기능을 지닌다. 또 공동체 의식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과 지역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근본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복지사회의 구현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는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증진을 토대로 그 동안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들은 존경받는 분위기 및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고 또 그들은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II. 지방자치제도의 노인복지 의미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토대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있다. 우리사회는 근래 연소자의 인구 감소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국가 및 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은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김성순, 1993). 정치, 문화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기능이 활성화될수록 지역사회의 복지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런 점에서 지역사회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우선 노인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사업은 본인의 자립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즉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별 원조에 대한 기대나 의존성이 높다고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생활의 중요 수단인 주거의 결정은 주택 입지 문제나 기타 사회생활과 개인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사회적 자원은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하도록 배분되어야 하고 대상자 자신의 이익과 동시에 독립성과 개별성, 공익성도 고려하여 원조되어야 한다 (Purkisedal, 1982).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복지를 양로시설사업이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즉 기본적인 생계문제뿐만 아니라 문화 생활을 영위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개선해 주어서, 삶 그 자체가 보람있는 생활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활성화시켜 나가야 하며, 그리고 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공공 업무의 결정과 집행에 직접 참여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뜻하기도 한다. 여기서 지역 주민의 참여라는 것은 가족, 친지, 이웃 등과 같은 비공식 보호 서비스를 비롯하여 상호협력 모임이나 이웃 돌보기 모임, 자원봉사활동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의 개념은 광의적으로 의료혜택이나 직업, 주택, 교육, 레크레이션 등의 사회서비스를 뜻하고, 협의적으로는 노령퇴직, 실업빈곤, 병약, 배우자와의 가족 사별, 애정상실에서 발생하는 생활궁핍, 삶을 상실한 노인들에게 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사회조직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 활동이 바로 노인복지이다 (김계삼, 1992).

원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성립된 노인복지는 사회의 발전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 곧 사회의 발전이 사회 복지 제도의 발전을 의미하는데, 근대사회는 노인들을 국가사회에 공헌한 점에 대한 보답으로 공제활동, 보험부담 등으로 보호하는가 하면 노동력 상실 후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들이 개발되고 있다 (김순남, 1989). 특히 우리나라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산업화·공업화에 의한 가족 부양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고, 생계마저 위협당하는 노인가정이 속출하게 되면서 노인문제 해결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심 확대, 공경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통적 시책의 추진, 그리고 노후가 즐거운 여생이 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목표로 삼고 노인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Ⅲ. 지방화시대의 노인 복지사업과 시책

우리 사회는 1980년대 후반 평균수명이 이미 70세를 넘었고, 금세기 말에는 국제연합에서 규정하는 고령화 사회에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화 사회에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가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한 것을 의미하는데, 곧 지역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복지사업이 조직적으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방화 사회로 변모한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는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복지사업의 중요성이 대두하였으며, 그러한 상황에서의 노인복지사업의 목표는 개인의 생리적,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 욕구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노인복지 사업의 목표는 우선 경제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최저한의 생계비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리고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어 가정과 이웃,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 ·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인복지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가치관을 수반한 기본적인 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 (김계삼, 1992).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노인이 신체적 노화로 존엄성이 무시되거나 신분, 직업, 연령, 신체적 · 정신적 건강, 경제적 지위로 차별받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노인의 복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가능하면 노인 스스로 선택 · 결정하도록 해야 한

다. 셋째, 노인의 은거생활 또는 퇴직으로 인한 활동성의 감소를 무위도식, 비생산적인 상태로 해석하거나, 그러한 노인을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감이 없는 무료한 존재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노인들에게 사회봉사와 같은 기회를 제공하여 책임감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모든 노인이 공통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지만 정부에서 주어지는 서비스나 사회적 여건은 욕구에 따라 선별적 원칙과 보편적인 원칙하에서 적절하게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복지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노인을 전체성을 지닌 인간으로 받아들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인 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복지사업이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여섯째, 현재 이미 노인이 된 세대와 미래의 노인세대와는 서로 욕구가 다르므로 이를 잘 반영하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김계삼, 1992).

노인복지는 사회환경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즉 소득원의 상실로 인한 빈곤과 경제적 곤란, 신체 정신적 소외와 건강 문제, 가정사회의 역할 상실, 고독과 소외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의 확립이 있어야 하겠다. 소득보장방법에서는 세금을 재원으로 할 때 무각출 노령연금제도의 실시와 자녀에게 노부모 부양수당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노인에게 직접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박재간, 1995). 둘째, 정년 연장을 위한 법적 조치와 행정지도의 강화이다. 즉 고령자 및 조기 퇴직자의 재취업과 소득보장문제, 직업의 알선이나 직종개방 그리고 노인보건 · 의료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정규서, 1995). 셋째, 현실성 있는 복지 시설운영과 보조비 지급, 프로그램 개발과 최소한의 비용은 지방비에서 부담해 나갈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 수행에 사용되는 예산이 너무나 빈약하여 현실성이 부족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정책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김계삼 (1992). 노인복지론. 서울: 학문사.
- 김성순 (1993). 고령화 사회와 복지 행정. 서울: 삼우출판사.
- 김순남 (1989).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홍익제.
- 박재간 (1995). 무각출 노령연금의 필요성과 그 도입방안. 박재간
외(편), 고령화시대의 위기와 도전 (pp. 445-461). 서울: 나남출
판.
- 정규서 (1995). 조기퇴직자의 재취업과 소득보장문제. 한국노년학,
15, 109-121.
- Purkiseda, A. (1982). *Housing and Community care*. London :
Square Press.